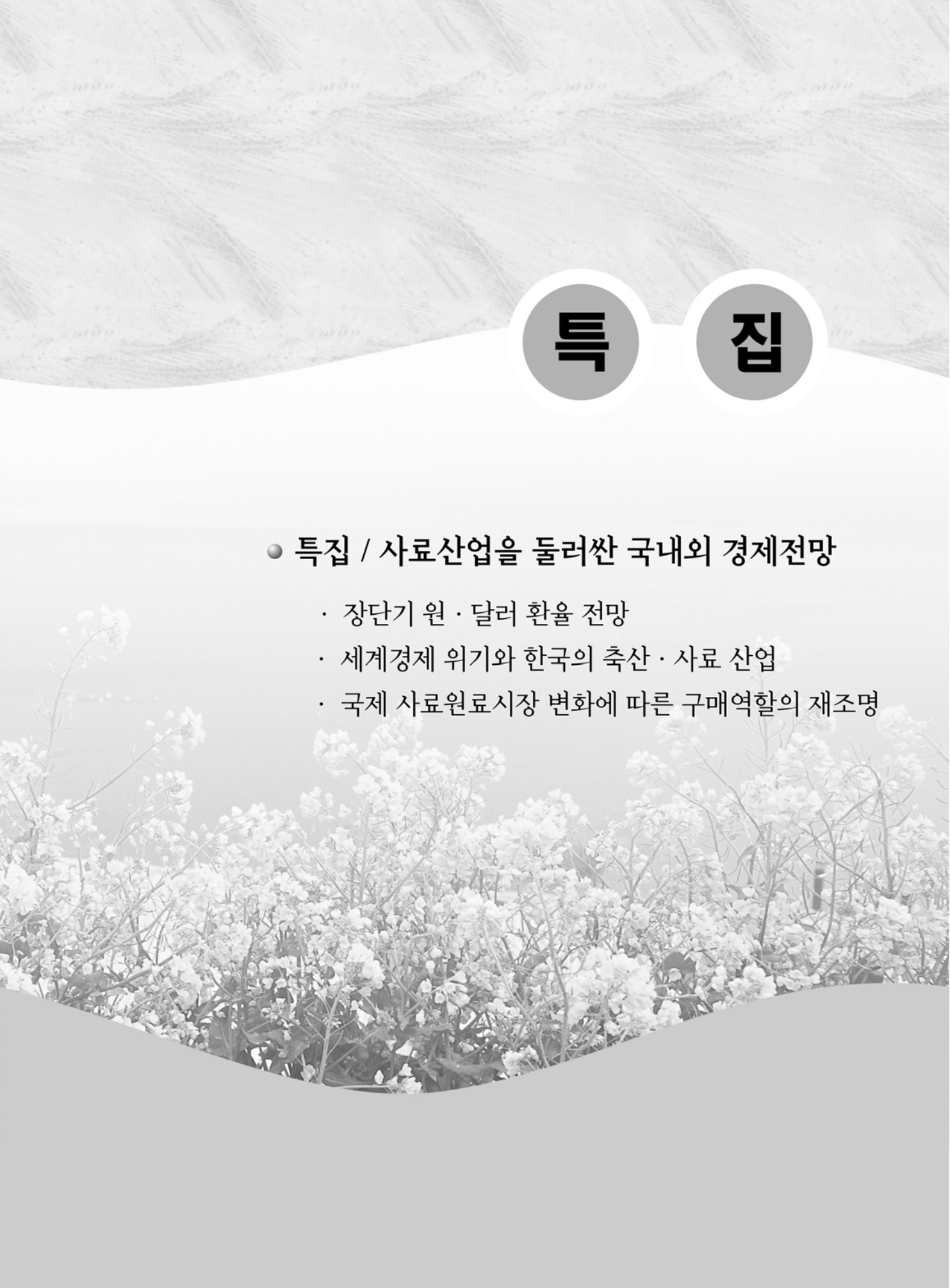




특

집

● **특집 / 사료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경제전망**

- 장단기 원 · 달러 환율 전망
- 세계경제 위기와 한국의 축산 · 사료 산업
- 국제 사료원료시장 변화에 따른 구매역할의 재조명

장단기 원·달러 환율 전망



안 순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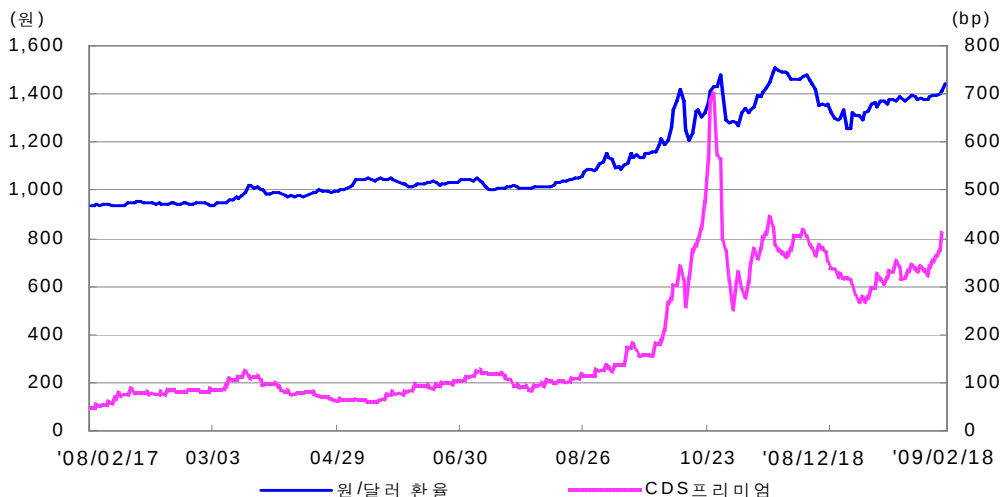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외환시장이 다시 불안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해 말 1,200원대로 하락했던 원·달러 환율은 2월 12일 1,404원을 기록하면서 두 달 만에 1,400원을 넘어섰으며, 7일째 상승하며 18일에는 한때 1,476원까지 치솟았다.

이 같은 환율급등세는 외환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을 빗나간 것이다. 지난달 초만 해도 상당수 전문가들은 올해 상반기 원·달러 환

율이 1,300원대 이하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었다. 외국인의 주식순매수 및 국책은행의 외화조달 성공 등으로 외환수급사정이 호전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이 최근 예상 밖으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배경을 무엇일까? 우선 글로벌 신용경색에 따른 선진국 자금의 지속적인 이탈 탓이다. 지난해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



자료: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그림1〉 원/달러환율 및 CDS프리미엄추이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의 유동성공급 및 동반 금리인하 등 국제공조로 신용경색 우려는 많이 완화되었으나, 올해 들어서도 미국 및 유럽 은행들의 실적악화로 글로벌 시장에서 투자금을 회수해 현금을 확보하는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이 계속되고 있다. 선진국 금융회사들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의 차입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달러조달이 쉽지 않은 것이 환율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의회가 7,87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통과시켰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기대감이 약화되어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원·달러 환율에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의 자동차 빅3중 하나인 GM의 파산 보호 신청 가능성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몰고 올 것이라는 우려가 안전자산인 달러화에 대한 선호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할수록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의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내는 역설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미국에 이어 영국 등 유럽 금융회사들의 자금 회수가 본격화되면서 아일랜드의 국가부도우려와 러시아의 채무불이행 및 동유럽발(發) 제2의 금융위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한국 등 신흥시장국가의 외화자금사정은 더욱 악화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용위험도를 나타내는 CDS(신용부도스왑) 프리미엄은 17일 412bp를

기록,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400bp대로 급등해 국내은행들의 외화차입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과 함께 대내적 요인도 환율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증시에서 외국인이 다시 순매도로 전환하면서 환율상승의 불을 지피고 있다. 글로벌 디레버리징과 연계된 외국인의 대량의 주식 매도는 지난해 11월로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나, 국내주식을 저가 매수한후 글로벌 금융불안이 고조되면서 대량 매도함으로써 중간차익을 실현하고 있는 모습이다.

외국인들은 해외증시움직임과 국내 금융시장 및 경기대책 등의 재료에 따라 매수 및 매도를 반복하면서 환율향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글로벌 경기침체와 금융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 증시를 통한 환율상승압력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시장 차입여건 악화로 인한 은행권의 외화자금 수급 불균형은 당분간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1월에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잇달아 20억 달러 규모의 외화채권발행에 성공했을 때만 해도 글로벌 신용경색 완화의 기대가 높았었다. 그러나 상황이 다시 악화되면서 은행들의 외화차입은 연기되고 있다. 최근 국내은행들에 대한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향조정은 국내은행의 외화자금 조달 여건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여기에다 우리은행의 해외후순위채 콜옵

선 미행사가 국내은행의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도 악재중 하나다. 실제 달러화 차입여건을 나타내는 지표중 하나인 1년물 통화스왑(CRS)금리는 2월중 사상 최저 수준인 -1.3%까지 하락, 외화유동성 불안을 반영하고 있다¹⁾. 올들어 2월 17일까지 국책 및 시중은행들이 88억4천만 달러의 외화를 조달했지만, 연말까지 18개 시중은행이 갚아야 할 단기 외채는 350억 달러에 달한다. 외화유동성이 개선될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키코 관련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은행들이 기존 계약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달러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외화수급 사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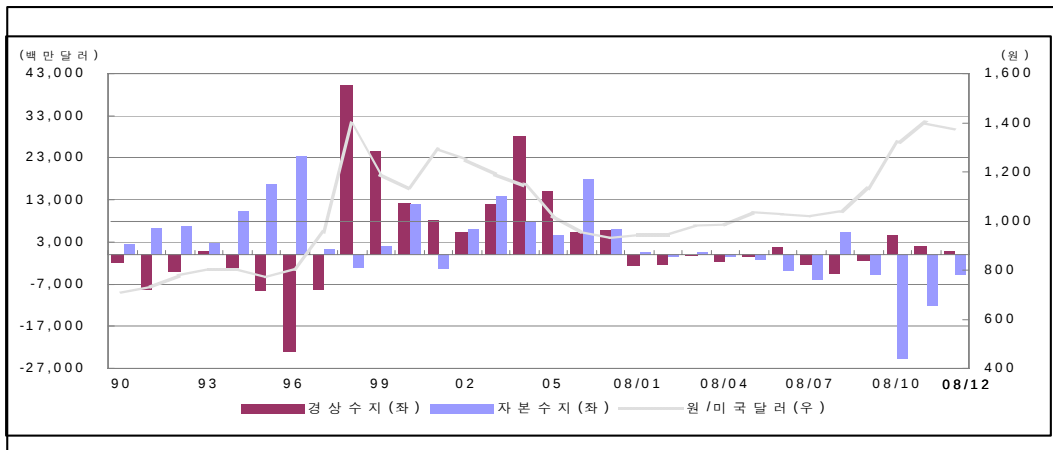
게다가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권의 대외채무 350억 달러 중 66억 달러가 3월중 만기가 집중되어 있는 데다 만기연장도 쉽지 않

은 점이 큰 부담이다. 여기에 3월 결산인 일본의 금융기관이 대규모 자금회수를 벌일 것이라는 비관적인 시나리오까지 뒤섞이면서 일부에선 ‘3월 위기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3월까지의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적으로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1,400원 선을 넘어선 환율은 단기적으로 1,500원선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3월위기설은 찻잔속의 태풍으로 끝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

3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국고채는 약 3조8천억 원으로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발했던 지난해 9월의 20% 수준인데다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권의 외채 66억 달러는 1월말 외환보유액이 2,017억 달러임을 감안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환율의 상승세를 예측하는 또 다른 중요한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그림2〉 경상 및 자본수지와 원/달러환율 추이

1) CRS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스왑 계약 시 빌려주는 원화에 대한 이자를 받지 못하고 도리어 줘야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유는 예상과는 달리 올 들어 경상수지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이다. 무역수지는 지난 1월 수출이 사상 최대 폭인 32.8%나 감소하면서 29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의 부진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올해 경상수지가 150억 달러 이상 흑자를 내면서 환율하락에 일등공신이 될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도 올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정부가 이미 마이너스 2%성장으로 하향조정하고 기업의 수익성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외환시장의 수급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의 펀더멘털과 기업의 수익성 등의 악화까지 겹치게 되면 상반기 중 1,500원선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무시할 때 없는 것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서해안 도발 등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원화약세의 심화는 불가피하다.

원화의 약세 행진을 막을 거의 유일한 수단은 현재로서는 정부의 시장개입 정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기경제팀 수장인 윤증현 재정기획부 장관은 ‘환율은 시장에 맡기겠다’고 밝히고 ‘외환보유액은 보수적으로 사용하겠다’며 1기 경제팀과는 달리 외환시장 개입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당국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해외수요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수출 증가를 위해 원화약세를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글로벌 신용경색이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외환보유액 2천억 달러 선 붕괴를 피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1월말 외환보유액은 2,017억4천만 달러로 외환시장개입에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어렵고 한미통화스왑 자금 300억 달러도 이미 163억5천만 달러가 인출되어 2월말부터 만기가 돌아오기 시작한다. 한미통화스왑자금은 시장개입에 사용할 수 없는 데다 외화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은행들이 만기연장을 요청할 경우 거절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국의 시장개입에 대한 소극적 자세는 외환시장에서 환율의 변동성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 역외세력은 당국의 환율방어의지를 시험해보기 위해 1,500원선까지 달러를 산후 차익실현에 나선 후 다시 달러를 사들일 것으로 보인다.

당국이 외환보유액 2천억 달러를 지키기 위해 시장개입에 소극적일 경우 환율은 지난해와 같은 급격한 변동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연고점인 1,525원선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연고점인을 돌파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1,450원을 넘어선 단기급등으로 인해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발동된 상태인데다 기업들의 네고물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환율향방은 무엇보다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완화여부에 달려있다. 올 상반기 중에는 글로벌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국제금융시장도 동유럽발 위기 등의 악재가 수시로 나타나면서 불안과 일시 진정을 반복하는 과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제금융 불안과 일시 진정 국면이 되풀이됨에 따라 외국인 자금도 유입 및 유출 흐름이 수시로 바

뀌게 되면서 환율상승 압력을 높일 것이다.

국내금융기관의 외화차입 여건도 여전히 어려울 것이다. 여기에도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부진으로 경상수지 적자 개선마저 여의치 않으면 환율상승세의 추세 반전은 쉽지 않을 것이다. 올 1·4분기에는 외우내환이 겹치면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서 등락하다가 3월위기설을 통과한 2·4분기 들어 글로벌 금융불안이 한풀 꺾이면서 1,300원대로 소폭 하락 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은 올해 하반기에는 하향 안정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통화완화정책에 힘입어 세계경제가 하반기에 완만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글로벌 신용경색의 완화와 외화조달 여건의 개선으로 원·달러 환율이 3·4분기에는 1,250원대, 4·4분기에는 1,150원대로 하

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환율의 하향 안정세는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따른 수출의 증가세 반전, 오는 10월말로 만기가 도래하는 한미통화스왑협정의 재연장에 따른 외환 시장 안전판 확보 등을 전제로 한 것이다.

글로벌 신용경색이 완화될 경우 안전통화로서의 달러화 강세가 약세로 반전할 가능성이 높은 점도 향후 원화의 지나친 약세가 반전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 중 하나다. 하반기 이후 미국의 금융위기가 장기화되더라도 달러화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글로벌 금융 불안의 위험수준이 하반기에 완화될 경우 달러화가 안전통화로 인식되지 않으면서 미국 금융회사의 대량파산 및 재정적자 급증 등이 달러 약세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위기와 한국의 축산·사료산업



김치영

본회 구매본부장(경제학 박사)

◆ 골드락스 경제의 퇴조와 디플레이션의 공포

지난 십여 년 동안 세계경제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호황의 상태, 즉 성장은 지속되면서도 물가는 크게 오르지 않는 골드락스 경제(Goldilocks Economy) 상태를 보여 왔다.

골드락스란 말은 원래 영국의 전래동화 “골드락스와 곰 세 마리에서 유래한 용어로 금발머리 소녀인 골드락스가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곰이 사는 오두막집에서 곰이 끓여 놓은 세 가지 스프 중에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적당한 스프를 먹고 돌아 왔다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이것을 경제 상태에 비유하여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호황을 의미한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가 중국이 2004년 큰 물가상승 없이 9.5%의 고도성장을 이룬 것을 빗대어 “중국경제가 골드락스 경제에 진입했다고 기사화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지난 2008년도 다보스 포럼에 모인 세계 각국의 석학들은 이제 더 이상 세계 경제의 골드락스는 없다며 지속적인 물가상

승 속에 경기후퇴를 우려한지 일 년도 채 안되어 세계경제는 지금 유가상승과 대부분의 원자재를 비롯한 농식품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미국 발 금융위기와 함께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에 시달리게 되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스태그네이션(Stagnation: 경기침체)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경기의 침체상황에서도 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과거 우리나라도 1970년대 중 후반 오일쇼크 이후 경기의 침체상황에서도 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물가가 상승하며 경제성장에 발목을 잡았던 경험이 있어 우리 경제가 다시 스태그플레이션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은 아닌지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난해 말 이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촉발된 금융위기 이후 급등하던 원유와 원자재 가격마저 크게 폭락하면서 물가하락을 수반한 경기침체가 우려되면서 이미 세계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넘어 이제 정도가 더 심한 슬럼프레이션(Slumpation) 또는 디플레이션(Deflation)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고도성장에 따른 인플

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에만 익숙해 왔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생소하다.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 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며 물가가 꾸준히 상승하는 것을 말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의 침체상황에서도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말하고, 디플레이션은 물가하락과 함께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그 동안 세계경제는 두 차례의 오일 쇼크를 경험하며 경기침체상황에서도 원자재 가격과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어 왔지만 최근에는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인 심각한 경기침체와 함께 원자재 가격도 급락하는 디플레이션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스태그플레이션과 마찬가지로 디플레이션은 선진국들의 경기침체와 함께 경제활동 자체를 위축시켜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 개발국들의 수출을 어렵게 하고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더욱 우려되는 것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조기에 극복되지 못할 경우 우리가 겪을 디플레이션은 70년대에 경험했던 스태그플레이션 보다 더 강도가 크고 기간도 길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세계경제 환경은 70년대와 사뭇 다르다. 과거 70년대의 스태크플레이션은 60년대에 누렸던 경제호황의 종말과 산유국의 담합이라는 일시적인 사건에서 비롯됐지만 이번 상황은 9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물가상승 압박이 사라지면서 전 세계적인 저금리체제와 위험자산 선호가 계속됐고 이 과정에서 생겨난 자산 거품이 꺼지는 과정의 산물이다

보니 금융시장의 불안정마저 더해져 경제침체의 여파가 더 깊고 복잡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이 디플레이션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을 막기 위해 금리를 낮추고 재정지출을 늘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상황도 점차 물가부담이 늘어나며 어렵사리 버티던 경기마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 2009년 세계경제 전망과 한국경제

이처럼 세계경제가 심각한 침체국면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월 28일 금년도 세계경제전망 보고서(WEO)를 통해 금년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0.5%로 하향조정했다.

이 같은 경제 성장률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지난해 11월에 제시했던 2009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 2.2%를 1.7%포인트나 하향조정한 것으로 향후 전 세계적인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 같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우리나라에도 파급되면서 금년도 우리 정부의 경제성장률도 몇 차례 하향조정 되는 가운데 무역수지, 환율, 고용 등 모든 경제지표의 하락이 가시화 되고 있고, 오히려 정부 측의 전망보다도 더욱 암울한 경제 전망을 신뢰하는 미네르바 신드롬까지 가세하고 있다.

그러나 각 기관마다의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제시된 금년도 경제성장은 대체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고 보는 가운데 최근 일본의 노무라 증권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GDP)을 기존 -2%에서 -6%까지 하향조정하였다.

결국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금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리라는 데 이견이 없다. 이는 최근에 대외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09년도 경제전망을 보더라도 각 부문별로 예상되는 전망과 당면한 현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세계 지역 경제는 금융 불안정이 진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기에서 파급된 실물경기 침체현상이 전 세계에 걸쳐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국제금융 위기가 초래한 전 방위적인 유동성 경색 현상은 달러와 엔화를 제외한 거의 모든 통화의 가치를 급격히 떨어트렸으며, 선진국과 개도국을 막론한 모든 기업의 활동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이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가 유동성 부족을 완화하고 경기침체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2008년 하반기부터 뚜렷해진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을 저하현상은 2009년에 접어들면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하반기에 들어서면 세계경제가 저점을 통과하며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이를 확신하기에도 아직 이르다는 것이 연구원측의 입장이다.

그리고 주요선진국의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최근 들어 보호무역주의의 부활 조짐과 함께 2009년도 세계무역도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10월 이후 감소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수출입 증가율은 11월 이후 마이너스로 돌아 서면서 세계경제의 위기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2009년도 우리나라의 수출은 세계 경기침체 여파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며, 수입도 유가하락과 국내 수요 감소가 예상되어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가격 상승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예년의 수입증가율을 크게 하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국제외환시장에서는 2009년에도 지난해의 국제금융위기의 여파로 달러화,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인식되어 강세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원화의 대달러 환율은 하향안정세를 시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더욱 심상찮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금년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9%로 2004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동안 버팀목 역할을 해 왔던 수출도 지난 1월 하루 평균 수출액이 13억 7천만 달러로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이 같은 가운데 2월 20일 현재 원화의 대달러 환율은 1,506원을 기록하면서 연중 최고수준을 보여주며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속시키고 있다.

◆ 변화하는 대내외 경제여건과 사료산업

경제는 달리는 자전거와 같아서 멈추어 서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정책금리를 인하하며, 재정지출을 늘리고 국가 간의 보호무역 움직임을 경계하면서 국가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새로 취임한 미국의 오바마 정부의 경제 정책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사회간접투자의 확대로 미국과 세계 경기회복을 앞당기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자에게는 세금을 가난한 자에게는 일자리와 복지를” 늘리는 것이 오바마 경제정책의 요체이다.

즉 부자에게 세금을 돌려주어 부자가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하향식 경제가 아닌 일반 국민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어 그들이 번 돈으로 경제가 돌아가게 만드는 상향식 경제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현 정부의 하향식 경제정책과는 상반되지만 재정지출을 늘려 소비와 생산을 촉진시켜 경기를 진작시키려는 데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과연 어느 것이 정책적 효과가 크고 작음을 떠나 대부분의 나라들이 돌아가는 경제의 수레바퀴를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소비 진작을 위한 상품권 제공, 신차 매입시 보조금 지불 등 기발한 아이디어까지 마구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십 여년 동안 세계경제가 그러했듯이 우리나라의 축산업과 배합사료산업도 뜨겁

지도 차갑지도 않은 호황의 상태, 즉 성장은 지속되면서도 가격이 안정되는 골디락스 상황을 지속해왔다. 이 같은 성장의 이면에는 낮은 원료가격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지속적인 축산물 수요의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 수년 동안 곡물가격이 급등하며 배합사료 및 축산물의 생산 원가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고, 환율상승으로 인한 사료회사의 원가부담도 크게 늘어나고, 지난해 이후 경기침체의 여파로 소비마저 크게 위축되면서, 환율상승에 따른 축산물 수입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축산물 생산과 배합사료 생산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원재료 수입비중이 높은 배합사료 산업의 경우 지속적인 원료 가격의 상승과 환율상승으로 인해 가격인상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 농민 판매 사업이란 특성 때문에 원가상승분을 제품가격에 제대로 반영시키지도 못한 채 가격 하락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더욱이 양축농민들의 경우는 다른 공산품과 달리 원가상승부담을 최종소비자들에게 쉽게 전가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양축농민들의 축산물 생산비 압박은 더욱 가중되고 축산물 가격이 오르지 않는 한 양축농민의 파산은 불가피해질 수 밖에 없다.

지난 십 여년 동안 축산물 가격이 안정을 보였고, 배합사료가격도 낮은 원료가격 위에서 환율하락으로 인해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해 왔지만 최근 들어 전 세계적인 유가폭등과 곡물을 이용한 바이오 연료의 생산이 폭

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사료원료 가격도 폭등하고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던 환율도 지난해 이후 폭등세로 바뀌어 지면서 사료업체의 경영환경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축산·사료산업만이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늪에서 비껴갈 수는 없으며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축산물의 수입증가와 함께 사료원료 가격 및 환율의 상승으로 인한 배합사료가격의 인상, 그리고 디플레이션에 따른 축산물 수요 감소로 인해 양축농가의 사육심리는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배합사료 생산량 역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도 축산·사료산업의 일자리를 유지시켜 달리는 수레바퀴를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한 오바마식의 상향식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즉, 생산 및 소비주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축산물 소비수요를 진작시킴은 물론 양축농민들의 생산비를 낮추어 최소한 현재수준의 축산물 수요라도 유지케 하려는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료업체의 원료수입을 원활하게 하는 저리의 구매자금의 지원은 물론 현재의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확대하여 20만 양축농가들의 지속적인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는 금년부터 종부세 및 양도소득세의 완화로 발생하는 정부의 재원부족분을 20만 양축농가들이 수혜 받고 있는 사료원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없애 충당하려 하려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는 사료원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의 합당성 여부를 떠나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배합사료의 원가인상을 가져와 축산물 소비를 위축시킴은 물론 정부의 물가안정시책에도 크게 역행한다. 더욱이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소비를 진작시키고 산업의 가동을 늘려 어떻게든 경제의 수레바퀴를 돌려 나가려고 하는데 반해 우리 정부는 축산·사료산업을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지금 전 세계는 자국의 경제회복은 물론 세계적인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동원해가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도 미증유의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수출산업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존 산업이며 내수산업인 축산업과 사료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가며 경기회복에 서둘러야 할 것이다. ☐

국제 사료원료시장 변화에 따른 구매역할의 재조명



이 회 영
(주)이영통상 사장

지난해는 참으로 아찔하고 어지러웠던 한 해였습니다. 물로코스터와 같은 장세 속에서 벗어나는 가 싶더니 정신을 채 차리기도 전에, 전 세계로 확산된 미국발 금융위기에 휘말린 해외 투기자금의 이탈 및 이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불안과 전 세계로 확산된 경기침체에 따른 급속한 국내 경기위축과 수출 감소에 의한 급격한 원화약세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사료산업은 10년 전의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힘든, 배합사료시장이 형성된 이래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더구나 2009년 또한 여러 경제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관련된 모든 업체가 힘을 모아 이 어려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갈 수 있는 지혜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되돌아 보면, 현재의 수입원료의 시장 여건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나큰 변화를 보여왔으며, 특히 2000년 전후를 시작으로 해외 공급자 및 원료공급여건이 급격한 변화를 보여온 바, 해외로부터의 수입 원료 비중이 80%를 넘어서는 배합사료업체

에, 특히 사료원료구매에 관련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께 지난 27년 동안 공급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사료원료 중개업무를 진행해 온 필자가 지난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주요수출국들과 동남아 등지를 방문하며 느껴왔던 사료시장, 특히 사료원료구매에 관련된 시장변화와 이에 따라 갈수록 중요성이 더해가는 향후의 원료구매에 대하여 미력한 의견이나마 사료업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를 피력하고자 합니다.

1. 급격한 가격 변동

과거에 구매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신 분들은 모두 느끼고 있겠지만, 과거에 비해 최근의 원료가격 변동은 국제 곡물시장이 형성되어 온 이래 가장 급격한 변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옥수수 가격을 예로 들면, 필자가 기억하는 한, 1982년 이래 한국 도착가격이 대부분 100불에서 200불 사이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왔으며, 2005년까지 200불을 넘어서는 적은 국

심한 가뭄으로 인한 한 두 차례, 그것도 그 당시 잠깐 동안의 가격이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정상가격으로 회복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전 세계적인 경제 호황과 함께 중국과 인도의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에 따른 원자재 수요증가와 함께 불붙은 각국의 자원 확보 전쟁 및 이에 따른 바이오 에너지 확보경쟁에 따른 곡물의 식량자원으로부터 에너지자원으로의 확대 전환은, 가뜩이나 지구온난화와 함께 환경 불안에 따른 기상변화에 의한 농산물 작황의 불확실성을 급격히 증대시켜 곡물 가격의 변동폭을 크게 증가시켰으며, 해외 투기자본의 가세는 불붙은 곳에 휘발유를 끼얹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제 해운 운임도 급격히 상승하여 지난 수십년간 대부분 톤당 20-30불대에서 형성되어왔던 5만톤급 운임이 2006년에 톤당 90불에 육박하였으며 2007년 잠시 50불까지 하락하였던 운임은 2008년들 중반에는 톤당 140불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옥수수 수입가격은 2006년 후반 들어 톤당 200불을 넘어서더니 2007년 내내 200불을 웃돌았고 2008년 들어서는 300불을 돌파하여 2008년 여름에는 350불을 넘어서까지 상승하였습니다.

그 후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경기하락과 함께 국제운임이 20불대까지 폭락하여 2008년 12월에는 미산 옥수수의 한국 도착가격이 톤당 170불까지 하락하였으니, 불과 지난 5,6개월간의 가격변동은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지옥과 천당을 거의 동시에 경험하게 한 아찔한 기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글을 쓰고 있는 2009년 2월초 현재 미산 옥수수가격은 다시 200불 근방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운임시장 또한 점진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가격변동추이에 대해 마음이 놓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2. 해외 원료 공급의 불안정

배합사료원료의 80%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있어 우리가 원하는 값싼 양질의 원료를 적기에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하겠습니다.

과거의 우리 배합사료업체는 80년대 이후 급격한 성장을 이룩하면서 주요 원료수출국들에게 있어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었습니다. 특히 옥수수, 대두박 등의 주원료 외에도 다양하고 값싼 여러 부원료의 수입은 국내 배합사료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의 경우 자국내 사료시장의 급속한 팽창과 함께 과거에 한국에 수출했던 원료들이 자국내에서 상당량 소비되어 일부 원료를 제외하고는 점차 한국으로의 수출량이 감소하고 있고, 또한 베트남을 위시한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이 자국내 배합사료생산 증가로 이어져 이러한 원료들의 한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하는 것 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원료 확보에 있어 이들과 경

쟁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3. 해외 공급자수의 감소 및 한국시장에 대한 관심 저하

주요원료 구매를 위한 과거의 입찰을 되돌아보면 옥수수구매 입찰의 경우 한국 종합상사, 일본 종합상사 및 다수의 해외 공급사들이 참여하여 매년 20여 군데가 넘는 회사가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다수의 공급자들이 보다 많은 시장 참여의 기회를 얻기 위해 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국내 구매단체 및 주요 구매자 방문 및 해외 시장 방문을 위한 초대 등 구매자를 위한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최근의 상황을 보면 이러한 활동이 현저히 감소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로서는 여러가지를 꼽을 수 있겠으나 그 중 주요한 몇가지를 짚어보면,

첫째로는 해외공급자 수의 감소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1)국내종합상사들의 쇠퇴 및 최근들어 일부 회사들의 참여가 재개되고는 있지만 2)대부분의 일본 종합상사들의 한국시장으로부터의 철수 및 3)국제 곡물시장의 변화과정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국제 곡물상들의 인수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에 의해 공급자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최근의 옥수수나 대두박 입찰의 경우 참가자수는 열손가락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그 중 3,4개 공급사가 전체물량의 80%가까이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

고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인도, 중국 및 동남아에서 수출되어 온 주요 부원료의 경우, 경제성장에 따른 정부의 정책변화와 함께 성장한 자국내 회사들이 발빠른 투자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강화시켜옴에 따라, 경쟁력을 상실한 중소 거래업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외국계 회사들의 활동영역이 감소되는 등 소수의 공급자들이 시장지배력을 계속 확대시켜나가는 상황입니다.

둘째로는 대체 시장의 증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간단히 언급하였지만 중국과 동남아국가들의 경제성장에 따른 배합사료 수요 증가는 국내 배합사료회사들에게는 해외진출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지만, 해외 공급사들에게는 한국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도산 대두박의 경우 2005년 전까지는 한국이 최대의 수입국이었지만 지난 수년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수입 증가 및 일본의 인도산 대두박 수입증가로 인해 한국으로의 수출비중은 상당히 감소하게 되었고 팜박의 경우 3년 전부터 시작된 호주, 뉴질랜드의 팜박 수입이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들어 중국에서도 시험적으로 구매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최근의 급격한 경기위축에 따라 동남아 각국의 구매력 저하로 인해 한동안 이러한 상황이 잠시 호전될 수는 있겠지만 조만간에 예상되는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서라도 해외

공급사들이 한국시장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셋째로는 서로에 대한 이해부족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공급자는 구매자에 대해, 구매자는 공급자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과거에 한국시장을 담당했던 외국의 공급자들은 한국시장에 남다른 애정을 보여왔으며, 그것이 장삿속이든 아니든 간에 구매자에 대한 이해와 함께 가능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변화된 시장여건과 함께 세대교체가 된 대부분의 공급자들은 한국을 전 세계의 다른 구매자중 하나로 간주하여 다른 수입국에 적용되는 동일한 시각으로 한국 시장을 대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구매자 또한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과 더불어 어려워지는 공급여건에서 공급자가 부딪히게 되는 어려운 상황과 시장변화에 대한 이해부족 및 국내의 상황변화에 따른 위험부담전가 등으로, 공급자에게 한국시장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다른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하는 것은 물론, 중개상들의 역할감소로 직·간접적인 서로간의 의사소통도 점차 소원해지게 되어, 이는 결과적으로 서로에게 어려워지고 있는 국제 시장여건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수입원료 시장에 대한 상황은 각 품목의 시장상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이에 따라 구매에 관련된 사료업체, 특히

경영층의 구매에 대한 시각이 과거와는 크게 바뀌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지난 세월 동안 공급자와 구매자사이의 현장에서 직접 일을 담당해왔던 필자로서 사료회사의 구매에 관하여 몇 가지 다른 관점에서의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4. 구매에 대한 인식 전환

사료회사의 내부적인 조직을 나누어 보면 회사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기획이나 일반관리를 제외하고 크게 영업과 영업관리, 생산과 품질관리로 나눌 수 있으며 구매부서는 기획이나 일반관리의 한 부서로서 존재해왔습니다.

돌이켜 보면, 과거의 구매는 협회의 공동구매로 이루어진 원료구매의 사후관리 성격을 띄고 있었고, 이는 1980년 이후 배합사료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했던 당시 여건에서 공동구매로 인해 각사의 원료구매가격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 확보를 위한 영업부문의 경쟁이 가장 중요했었고, 시장규모가 안정기에 접어들기 시작했던 1990년대 들어 영업과 더불어 품질관리를 통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구매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은 일부 회사들이 그룹별 구매를 시작하게 되었으나, 대부분의 회사 내에서의 구매는 중요도에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를 점해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앞에서 언급한 국제시장 환경의 변화와 함께 회사별, 공동구

매그룹별 구매가격차이가 점차 벌어지고, 특히 2008년의 급격한 가격변동은 각 회사의 원가경쟁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구매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필자는 회사 내에서의 구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구매, 특히 수입원료를 담당하는 구매담당자는 불가피하게 국제시장에서 활동하는 전문 곡물상들과 국제거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회사 내 다른 부서들의 국내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매일매일의 업무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갖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원료시장의 특성상, 또는 다른 문화와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해외의 공급자들과의 거래에 있어 국내거래와는 다른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농산물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 정치, 경제 등의 다양한 요인과 함께 매일매일 거래되는 국제시장 및 산물(bulk)로서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들에 대한 이해관계에 따른 대처방안은 구매담당자들에게 무역실무에 대한 이해는 기본으로 하여 국제거래 및 시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해외공급사들과의 원활한 거래를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고와 더불어 국제적인 소양까지도 요구하게 됩니다.

또한, 자국내의 수요증가로 수출가능물량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신흥 수입국들의 수요증가로 인해 판매시장 선택의 폭이 보다 넓어진 해외공급사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시

장은 동일한 상품(commodity)을 거래하는 많은 다른 수입국중의 하나라는 사실이며, 이는 중개상을 통해서 거래되지만 결국 한국의 구매담당자와 접촉하게 되고, 이들과의 거래를 통해서 한국시장에 대한 인식과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간혹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분쟁의 경우, 구매담당자는 외부적으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통해 해외공급사로부터 회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내부적으로는 해외공급자의 입장을 회사 내에 이해시켜야 하는 조정자로서의 능력과 역할도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의 성공여부에 따라, 회사 내에서는 경영층의 신뢰와 함께 관련부서에서의 협조를 얻게 되고, 해외공급자에게는 합리적이고 능력 있는 거래파트너로서의 신뢰와 함께 보다 좋은 협조를 이끌어내어 향후의 거래를 통해 이를 결국 회사의 이익으로 환원시키게 될 것입니다.

5. 구매의 향후 방향

과거에 구매자가 원하는 조건대로 살 수 있었던 시기에 원료 수입 업무를 담당했던 분들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앞에서 언급한 대로 과거와 달라진 국제시장 여건 속에서 원하는 원료조차 점차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료회사 내에서의 구매부

서의 성공적인 활동능력은 향후의 어려워지는 국내 및 국제 경제여건 속에서 사료회사의 성공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요성이 더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구매부서의 성공적인 활동을 위해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수한 인재 확보 및 양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어느 회사, 어느 부서에서나 인재 확보가 중요하겠습니 다만, 상품(commodity)시장은 특히 개개인의 담당자의 능력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변화하는 국제시장에서 필요한 상품을 남보다 싸게 구매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시장변화에 대처하여 결정할 수 있는 판단력이 필수라 할 것입니다.

분야는 다르지만 금융시장에서의 외환딜러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능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수한 인재확보를 위해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우선 구매부서에서의 무역실무교육은 기본이며 위와 같은 전문가로서의 능력양성을 위한 국내 및 해외교육 등 필요한 지원과 함께 그에 합당한 대우 또한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오랜 시간을 들여 양성한 전문가를 잃게 될 경우 회사가 입게 될 피해를 생각하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동안의 국내시장에서만만의 활동으로 인해 국제적인 안목을 갖출 기회가 부족했던 사료회사의 입장에서는, 점차 국제적

인 여건변화에 영향을 더욱 더 받게 되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진출과 함께 향후 국제경쟁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미래의 사료시장에 있어 우수한 인재양성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며, 구매부서는 사료회사의 업무성격상 이러한 국제적인 안목과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 구매담당자들은 개개인의 역량을 총집중해서 필요한 교육과 스스로의 훈련을 통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다양하고 폭넓은 식견과 인간관계를 통한, 특히 해외공급자들과의 거래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고와 국제적인 소양을 갖추기 위해 뼈를 깎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앞으로의 국제원료시장은 기후 온난화, 에너지 자원 확보 경쟁 등 주요 생산, 소비국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요인들에의 변동성이 점점 더해갈 것이고,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이 점차 더해갈 수 밖에 없는 국제시장 여건 속에서 회사의 성공적인 경영활동을 위해서는 성공적인 구매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영층과 회사 내 관련 부서들에서의 구매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구매전문가로서의 우수한 인재확보 및 양성을 위한 경영층의 다양한 투자와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변화의 속도가 더해가는 국내외 여건 속에서 이러한 투자와 지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상황이라 하겠



습니다.

물론, 경영층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투자가 상당한 시간과 인내가 요구되며 확실한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불확실한 투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원료 의존도가 높은 배합사료산업에 있어, 특히 불안한 가격 변동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의 수

입원료 시장과 어려운 국내 경제여건 속에서 거의 한계에 다다른 배합사료시장에서, 남보다 우월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수한 자질을 가진 구매전문가 양성을 위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다른 어느 투자보다도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투자가 아닌가 감히 주장해봅니다. 